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지역
다문화 음악 수업 실태분석

202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송 혜 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지역
다문화 음악 수업 실태분석

김 명 속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송 혜 연

인 준 서

송혜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음악 교과서 14종과 학교 알리미의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중학교의 다문화 음악 수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의 악곡 비중을 교과서별로 쪽수로 계수하여 분석한 결과 14종 중 박영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미래엔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4종 전체 교과서의 쪽수 대비 다문화 요소가 있는 쪽수의 비율은 5.63%였다.

둘째, 각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을 악곡 수와 대륙별·국가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박영사 교과서가 28곡으로 가장 많은 악곡이 수록되었으며 미래엔과 비상 교과서가 7곡으로 가장 적다. 대륙별 악곡 분포는 유럽이 41회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오세아니아가 21회로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 각 대륙별 국가 악곡 수록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3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18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10회,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가 12회,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12회로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국가였다.

셋째, 교과서의 다문화 음악 영역의 내용체계에 따른 학습영역 비중을 나타난 분석에서는 표현영역이 111개, 감상영역이 66, 생활화 영역이 6개로 표현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 알리미를 통해 알아본 서울 소재 중학교의 다문화 음악 수업 시 다루는 대륙별 악곡 분석 결과는 유럽이 365회로 5대륙 중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199회로 가장 많다.

다섯째, 악곡 별 제시된 횟수를 알아본 결과 아시아의 모리화가 43회, 아메

리카의 라쿠카라차가 76회, 유럽의 산타루치아가 85회, 오세아니아 대륙의 연가가 91회, 아프리카 대륙의 잠보가 35회로 대륙별로 최다 제시되었다. 대륙별 악곡 갯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음악 교과서에서 다문화 악곡이 81곡이 다루어진 것에 비해 서울 지역의 다문화 음악 수업 시 67곡이 사용된 것을 보아,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곡을 실제 수업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서울지역의 다문화 음악 수업의 영역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영역이 가장 높았고 감상영역, 생활화 영역 순의 비중을 보였으며 학교 음악 수업에서 다문화 악곡을 다루며 음악학습을 하는 경우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경우보다 7.94% 더 많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4
2. 학교 알리미	14
3. 선행연구 고찰	18
III. 연구 방법	23
1. 연구 대상	23
2. 연구 절차	26
3. 연구 도구	27
4. 연구 분석 방법	39
IV. 연구 결과	40

1.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다문화 음악	40
2. 학교 알리미 공시정보의 다문화 수업 실태	48
V.결론	5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Ⅱ-1>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9
<표Ⅱ-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표	14
<표Ⅱ-3>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감상영역 성취기준	14
<표Ⅱ-4> 학교정보공시항목 및 공시정보 범위	18
<표Ⅲ-1> 연구대상 교과서	23
<표Ⅲ-2> 연구대상 학교 알리미 담당자치구	24
<표Ⅲ-3> 연구대상 학교 알리미 학교 수	25
<표Ⅲ-4> 연구 절차	26
<표Ⅲ-5> 연구 도구	27
<표Ⅲ-6>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30
<표Ⅲ-7> 다문화영역 해당 예시 1	31
<표Ⅲ-8> 다문화영역 해당 예시 2	32
<표Ⅲ-9> 다문화영역 제외 예시 1	33
<표Ⅲ-10> 다문화영역 제외 예시 2	34
<표Ⅲ-11> 대륙별·국가별 악곡 해당 예시1	35
<표Ⅲ-12> 대륙별·국가별 악곡 해당 예시2	35
<표Ⅲ-13> 대륙별·국가별 악곡 미해당 예시 1	35
<표Ⅲ-14> 대륙별·국가별 악곡 미해당 예시 2	36
<표Ⅲ-15> 대륙별·국가별 악곡 미해당 예시 3	36
<표Ⅲ-16>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1	37

<표III-17>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2	37
<표III-18>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3	37
<표III-19>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4	38
<표III-20> 다문화음악수업에 제시된 학습내용 예시	38
<표IV-1> 전체 쪽수 대비 다문화영역 쪽수	40
<표IV-2> 세계민요 악곡 대륙·국가별 분류	42
<표IV-3> 대륙 및 나라별 제시 횟수	43
<표IV-4> 모리화 목표 및 활동	45
<표IV-5> 대륙 및 나라별 악곡	46
<표IV-6> 교과서 별 학습영역 비중	47
<표IV-7> 다문화 음악 교육의 악곡 대륙별·국가별 분류	49
<표IV-8> 악곡 별 제시 횟수	51
<표IV-9> 다문화 음악 수업 학습영역 비중	52
<표IV-10> 다문화음악수업에 제시된 학습내용 분류	54

그림 목 차

<그림Ⅱ-1> 다문화 혼인 추이	8
<그림Ⅱ-2>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	8
<그림Ⅱ-3> 교육 정보 공시기관 협조체제	17
<그림Ⅲ-1> 대륙명 명시 예	28
<그림Ⅲ-2> 국가명 명시 예	28
<그림Ⅲ-3> 세계 여행 예	28
<그림Ⅲ-4> 지구촌 예	28
<그림Ⅲ-5> 학습 활동 중 다문화요소 예1	29
<그림Ⅲ-6> 학습 활동 중 다문화요소 예2	29
<그림Ⅲ-7> 미래엔 교과서 산타루치아	3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전 세계가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는 지구촌의 모습을 띠며 여러 나라가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 짓는 세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계화의 결과로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24,721건의 다문화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대비 4.0%(948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¹⁾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8만 명 감소한 초·중·고 일반 학생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 예상되는 데에 반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였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2.51%를 차지한다.²⁾ 이에 따라 인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를 갖는 각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이해와 평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 외의 또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태도, 지식,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다문화 경험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것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인종뿐만 아니라 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사회의 이상적인 목표가 된다. 따

1) 통계청(2019). **2019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서울: 통계청 p.1.

2) 교육부(2020).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서울: 교육부 p.27.

향유할 수 있으며, 나와 다른 가치를 갖는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에 나타난 다문화요소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하고,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시정보자료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음악 수업에서 실시되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다문화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의 악곡 비중, 국가별 제시 횟수와 대륙별 비중, 내용 및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영역 비중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 알리미’를 통해 알아본 서울지역 중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나타나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 실태분석은 ‘학교 알리미’에서 제공된 공시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알아본 연구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실제 수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2019년 한 해의 공시정보를 표본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수업 실태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요소를 분석하고, 학교 알리미의 교과별(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다문화 음악의 정의와 학교 알리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가. 다문화주의의 개념 및 발생 배경

다문화를 알아보기 전 문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영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그의 책 ‘원시 문화’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법, 도덕, 관습과 그 외 모든 다른 능력이나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한다.³⁾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 또는 하나의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간의 관용과 평화적 공존을 증진하고 실현하려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된다.⁴⁾ ‘다문화’에 대한 개념은 여러 문헌에서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를 정확한 정의 없이 다인종, 다민족 등과 동의어처럼 혼용되어 쓰인다. 다문화사회는 다수의 문화가 존재하

3) 원진숙·김정원·이인재·남호엽·박상철·김광수·류재만·장은영(2018) “학교 다문화교육론”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p.70.

4) 진시원(2018).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검토”, *다문화사회연구*, 11(1), p.7.

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문화의 수 보다는 문화의 공존형식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이용재는 말한다.⁵⁾ 현저한 문화적 차이를 갖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서 다문화사회가 비교적 ‘강력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윤리·정치적 원리로서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설정한 최성환⁶⁾, 광의의 개념으로 지역, 세대, 계층 간의 다문화와 협의의 개념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생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서혁도 있다.⁷⁾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가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각 문화를 연결하고 조화롭게 적용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적 이상, 기회 균등을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신을 목표로 하는 용어로 1971년 캐나다 정부 심의회(Canadian Royal Commission)에서 캐나다 민족 연방제 국가의 시민권 차원의 통치 전략으로 채택하였다.⁸⁾ 이 개념은 다문화사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다문화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때,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지역 문화나 상류층 문화 등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다원성이 혼재하는 사회를 뜻하는 용어이다.⁹⁾ 결과적으로,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 데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이다.¹⁰⁾

또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두 개의 요소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다문화주

5) 이용재(2012). “다문화사회 개념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 인간**, 1(1), p.39.

6) 최성환(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 p.294.

7) 서혁 (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12). **인간연구**, p.59.

8) 김진영(2012). **다문화 콘텐츠 기획-다문화시대를 여는 미래전략**.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15-16.

9) 신상록(2008). “다문화사회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사회통합 모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6), p.34.

10) 김경식·권민석·김병규·박명희·박형진·서봉언·윤주국·이현철·최성보(2017).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제2판 p.60.

의는 인종이나 성별, 그들이 가진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가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대부분은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수문화를 다수문화에 흡수하거나 동화시켜왔다. 이처럼 동화주의의 특징인 다양한 소수문화를 주류문화 속에 통합시키려는 경향은 이주민을 쉽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이주민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 결과 이주민들은 자신이 갖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뒤로하고 주류문화에 동화되도록 요구받는 경향이 있다.¹¹⁾

현대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소수인에 대한 불평등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화주의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주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인구통계학적-서술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속 전통이나 공연, 또는 음식 등에 의해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사회학적인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술한다. 둘째로는 프로그램-정치적 관점에 따라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을 보존·관리할 목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는 유동적인 여러 문화 간의 균형을 보존하고 변형시켜나가는 것을 다문화주의의 개념으로 본다. 광범위한 유형과는 달리 소수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인정하고 지원하는 다문화주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는 이념적-규범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보유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정치로 정리하며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집단 구성원들을 위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이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다문화주의가 등장했고, 여러 문화 사이의 차이를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한

11) 김태희(2016). “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8(-), p.8.

개념으로 다문화를 정의할 수 있다.¹²⁾

다문화 정책으로 나타난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 호주와 캐나다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로 1971년에 캐나다의 조례로 채택되면서 공식적인 다문화 정책이 펼쳐졌고, 미국과 유럽 외에도 인종과 문화가 다양한 이민 국가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대립을 안정·유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으며, 문화뿐만 아니라 인권과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해 등장했다.¹³⁾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소수민족 그룹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유산을 버리라는 동화론자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들의 삶과 문화들을 학교와 대학,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소수민족의 자아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모든 학생이 미국의 문화를 교육받아야 한다는 다민족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가치, 신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다문화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는 민족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타문화를 인정하는 문화를 지향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¹⁴⁾

따라서,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롭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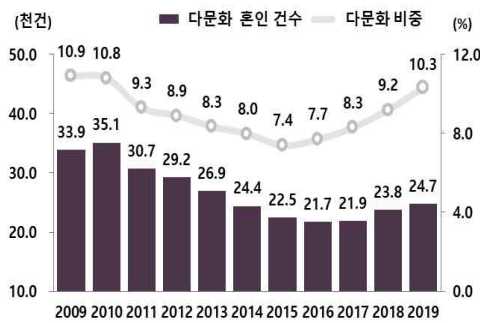
12) 유재택(2015). “기독교 통일 교육의 새로운 모색 :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2, pp.247-248.

13) 전경옥(2010). “다문화사회의 학교 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OUGHTOPIA**, 25(2), p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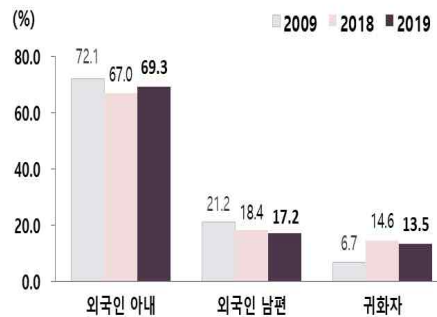
14) 성상환(2010). “미국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상담전략” **다문화교육연구와 실천**, 2(-), pp.2-3.

나. 국내 다문화 현황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해졌고, 급속하게 다인종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2015년 대비 32.8%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인다.¹⁵⁾ 그 결과 다문화에 관해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교육 방향에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로 인해 1990년대부터 결혼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의 증가 이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전체 혼인 중 10.3%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다문화 혼인을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의 혼인이 69.3%로 가장 많으며 이는 외국인 남편의 혼인이 17.2%인 것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았다. 그 내용을 <그림 II-1>과 <그림 II-2>로 나타내었다.¹⁶⁾



<그림 II-1> 다문화 혼인 추이



<그림 II-2>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

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p.38.

16) 통계청(2019). **2019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서울: 통계청 p.1. 재인용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일본 여성이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대 초부터는 중국과 필리핀 국적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6.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26.6%의 비중을 보였다. 17)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체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은 경기와 서울에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중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 비중 또한 서울이 39%, 경기가 32%로 가장 높다.18) <표 II-1>은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 현황에 관한 표이다.

<표II-1>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19)

연도 인원수	2015	2016	2017	2018	2019
다문화학생 수(A)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전체학생 수(B)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5,461,614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1.35%	1.68%	1.91%	2.19%	2.51%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p.51.

18) 교육부(2020).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서울: 교육부 pp.1-3.

19) 위의 책 p.27.

교육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실천하였다.²⁰⁾ 문화적·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지원센터 및 각종 적응 프로그램, 언어교육, 심리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명절 음식 만들기,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 예술 교육, 외국인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심리 상담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KSL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한국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수용성 제고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²¹⁾

다. 다문화 음악교육

다문화 음악교육의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 다문화 교육을 정의를 내리자면 다문화 교육은 학교 교육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써 모든 사회계층, 성별, 인종, 그리고 문화적인 집단들이 차별 없이 학습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개혁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보호되고 확장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인종·성·언어·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화 세계에서 공동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이다.²²⁾ 외국 문화의 이해와 함께 소수문화, 하위문화, 지역 문화 등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우리 일상적 삶 자체를 통해 더욱 풍부한 다문화적 경험을 하고 다문화적 인식을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즉, 다문화의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²³⁾

20) 인적자원정책국(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서울: 교육부 p.1.

21) 여성가족부(2019). **제3차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서울: 여성가족부 pp.21-22.

22) 김경식·권민석·김병규·박명희·박형진·서봉인·윤주국·이현철·최성보(2017).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제2판 p.65.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음악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1967년 미국 음악교육자 협회의 탕글우드 심포지엄 발표에서 제기되었다. 탕글우드 심포지엄의 선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모든 시대, 모든 양식, 모든 형식, 모든 문화의 음악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우리 시대의 모든 음악이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10대들의 대중음악, 아방가르드 음악, 미국의 민속 음악, 다른 민족의 음악들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이 이후에도 몇 차례 다문화 음악교육을 주제로 하여 필요성을 언급하며 심포지엄을 열었다.²⁴⁾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캠벨(Campbell, 1993)은 다문화 음악교육을 종족, 인종, 성, 종교, 계급, 생활양식, 문화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의 음악이며, 국가와 종족의 기원에 의해 형성된 집단의 대표적으로 주를 이루는 음악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엘리엇(Elliott, 1989)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고, 이는 전통과 문화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음악이 더 가치 있고 우월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으로 낙후된 문화권이라도 그 문화권이 가진 고유한 음악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²⁵⁾ 즉, 모든 나라의 음악과 더불어 그 나라들의 음악들의 관련된 음악교육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음악을 골고루 다루되 우리 민족의 현재 삶에 의미를 갖는 교육이 다문화 음악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많은 교육가에 의해 다문화 음악교육 연구가 실시되었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가와 인종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

23) 박승우(2019). **다문화 교육과 정책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p.229.

24)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음악과 문화**. 2(-) pp.53.

25) 최승은·박봉수(2013).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2(1) pp.90-91.

26) 권덕원 위의 책 (2000). p.68.

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하며, 자국의 음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서양음악에 편중된 것에서 벗어나 각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민족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인종·문화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치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차별의 극복과 화합에 기여해야 한다.²⁷⁾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핵심역량을 제시하여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다. 음악과에서도 음악 교과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음악 교과 활동을 통해 ‘성격’ 항에 6가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하였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을 제시하였다.²⁸⁾

이 중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역량을 음악과에 알맞게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여기에 내재된 교육적 의미는 우리 문화와 타문화의 음악 문화를 이해하여,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사회, 문화,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가치를 존중하여 음악적, 문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말한다. 문화적인 이해와 다문화가 연관되기 때문에 다양한 악곡과 내용이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³⁰⁾

27)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한국예술교육학회** 7(1), pp.103-107.

28)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2]. pp. 3-4.

29) 장근주·이영미(2017).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탐색. **음악교육공학** -(32), pp.235-236

30) 박지현(2019). “2015 개정 음악과 역량의 의미와 요소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6) p.86.

총론의 공동체 역량의 의미는 학교급별 목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중학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며,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다. 즉, 음악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 창출과 음악적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확대된 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를 목표 부분에 제시하였다.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다문화 음악교육과 연관된다.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세계 시민의 자세를 배우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으로 나뉜다. 내용 체계는 구체적으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네 가지로 세부영역이 제시된다. 그 중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감상’ 영역에 나타난 “[9음02-03]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그 음악이 속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한다”는 다문화 요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음악 요소, 개념, 종류와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각 나라의 시대적·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의 음악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 음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드러난 것이다. <표Ⅱ-4>는 중학교 감상 영역의 내용 체계를, <표Ⅱ-5>는 중학교 감상영역의 성취기준을 나타낸다.

<표Ⅱ-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표³¹⁾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요소와 개념 • 음악의 종류 • 음악의 배경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하기 • 표현하기 • 설명하기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표Ⅱ-3>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감상영역 성취기준³²⁾

[9음02-01]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9음02-02]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2. 학교 알리미

가. 학교 알리미 개요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26일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³³⁾ (약칭:교육기관정보공개법, 법률 제14839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2]. 서울: 교육부 p.5.

32)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2]. 서울: 교육부 p.15.

3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9%EA%B5%90+%EA%B3%B5%EC%8B%9C%EC%A0%95%EB%B3%B4#undefined>

- 1."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 4."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5."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정보공개 원칙은 첫째,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둘째,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선 안 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 (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한다. 또한,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거나 명령하게 되어있다.

교육 정보 공시기관은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 이르기까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살펴보면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교육부는 학교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법령을 재·개정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며, 학교별 공시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검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협의체에서는 학교정보공시의 운영 전반에 관해 협의 및 조언, 학교정보공시의 제도 및 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시·도 교육청은 해당 관할 단위학교 공시업무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공시자료를 수합하여 관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며, 공시정보의 질을 관리 및 현장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학교는 총괄 업무 담당자와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를 지정하고 운영하며 공시자료를 제출 및 공시하거나 공시입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³⁴⁾



<그림 II-3> 교육 정보 공시기관 협조체제³⁵⁾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2008년 12월부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과 항목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학교

34) 박혜자(2002). 2020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p.6.

35) 학교 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si/po/pnsipo_a01_s0.do 2020.06

정보를 공시하게 되었다. 학교 알리미는 적극적으로 학교의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 학생, 정책입안자 등 교육 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알리미는 모바일로도 공시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2014년 12월부터 시범을 시작하여 2015년 2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³⁶⁾

나. 학교정보공시의 공시항목

초·중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그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현황, 학업 성취도의 총 6개 영역에서 항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있다. 이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종 고시일부터 3년간 공시된다.³⁷⁾

다음은 공시주기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은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한다. 수업에 관련된 공시항목은 4번에 해당하는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4-다의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4월과 9월에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월에는 1학기의 계획을, 9월에는 2학기의 계획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각각 과일을 탑재하여 입력한다.³⁸⁾ <표Ⅱ-4>를 통해 더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36)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p.5.

3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839호] pp.1-2.

38) 위의 책 pp.11-13.

<표Ⅱ-4> 학교정보공시항목 및 공시정보 범위³⁹⁾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4-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 고, 분교	연 2회	4월, 9월
4-다.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3. 선행연구 고찰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해지면서 음악 교과에도 다문화 음악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음악에 관한 연구와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의 실태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음악의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원⁴⁰⁾, 오지향·조혜운⁴¹⁾, 성유경⁴²⁾이 있고, 중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는 이승연⁴³⁾, 성주원⁴⁴⁾, 이지원⁴⁵⁾이 있으며 끝으로 학교 알리미에 관한 연구로는 박가현⁴⁶⁾이 있다.

39) 위의 책 pp.11-13.

40) 김영원(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분석 연구: 문화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41) 오지향·조혜운(2019).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학습 내용 분석. 미래음악교육연구, 4(2). 23-46.

42) 성유경(2019).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등 음악 교과서 비교 분석 : 세계의 민요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43) 이승연(2011).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중등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44) 성주원(2012).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 : 경상남도 지역 중학교 음악교사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45) 이지원(2019).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인천지역 중학생의 인식 및 실태조사. 이화여자대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중등 음악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한 이승연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전원이 필요하다 답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이해도를 묻는 지문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을 통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 하였다. 다문화 음악 수업 빈도는 매우 낮았으며 현장에서 다루는 악곡이 특정한 장르에 편중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사들은 음악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편이며 지도환경에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다문화 음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상남도 지역 중학교 음악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성주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개선점을 밝혀 음악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앞선 연구들이 서울·경기 지역이었음 차별성으로 두고 수도권이 아닌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며 효과적인 다문화 수업방법으로 가창을 선택하였다. 다문화교육의 현장적용 어려움은 연구시간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으며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지역 중심학교의 프로그램을 음악교육을 위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인천지역 중학생의 인식 및 실태를 연구한 이지원

학교 교육대학원

46) 박가현(2020). ‘학교 알리미’를 통한 서양 음악사 지도의 실태분석 : 충북지역 중학교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은 인천지역의 3개 학교 339명 학생에게 설문조사와 그 중 각 학교 학생 한 명씩 질문을 통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인천지역 중학생들은 다문화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문화 음악 수업 실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학년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 음악 수업의 효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들은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지역 학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을 음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올바른 다문화를 이해하여 편견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분석을 문화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연구한 김영원은 검정 교과서 9종을 모두 분석하여 다문화 음악교육 내용 중에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출판사 별로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악곡의 수록은 비중에 차이를 보였으며 대륙별 분포 분석을 통해 아시아의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주로 가창 중심의 활동으로 제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악곡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하고 고른 분포의 악곡이 다루어져야 하고,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접근에서의 학습활동 연구를 제안하며, 교육적, 문화적, 역사 및 사회적, 정치적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학습 내용을 분석한 오지향·조혜윤의 연구는 초등학교 20권, 중학교 28권, 고등학교 10권 교과서 총 58권을 분석하였다. 악곡의 종류와 지역의 분포, 악곡이 나타난 단원의 단원명과 구성, 주요 음악 활동분류, 다문화학습 요소의 제시 형태를 알아보며 그 결과 초등학교는

실생활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며 중등학교는 비판적, 실천적인 학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학생의 흥미를 위해 대중음악과 월드뮤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원어로 노래 부르는 활동과 같은 체험에서 벗어나 그 나라의 다양한 현상과 함께 문화체험이 연결된다면 더 질 좋은 다문화 음악학습의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재의 개발, 구체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 등 다문화 음악학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세계민요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성유경은 음악 교과서 총 13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 정도와 2009 음악 교과서와 비교하여 2015 음악 교과서의 활동면에서 어떠한 다문화적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 세계민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2015 음악 교과서에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이었던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활동이 더 많이 제시되고, 원어 수록이 부족했던 점 또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대륙별 불균형의 문제도 이전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며 선행연구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활동이 표현에 치중된 점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성유경은 세계민요가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서 고르게 다루어져야 하며 악곡에 따른 개별적 활동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학교 알리미’를 통해 충청북도 지역의 서양 음악사 지도의 실태분석을 연구한 박가현은 서양 음악사와 관련된 수업이 실제 현장에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권고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충청북도 지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정보공시제도를 반영한 웹사이트 “학교 알리미”를 활용해 음악 수업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상 위주의 접근 방식이 많았고 내용 면에서는 바로크, 고전, 낭만 부분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업을 평가할 때에는 보고서작성이나 학습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실음지필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교과서 분석이 주로 세계민요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교과서 분석으로 결론 지어졌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교사나 학생 인식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속된 몇 개의 학교에만 한정된 연구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의 분석과 더불어 공시자료를 토대로 중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다문화 음악 수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차별성으로 두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알리미’에 나타난 서울 지역 중학교 음악 수업에서의 공시정보를 분석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1) 교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각 출판사마다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출판되어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는 권수와 상관없이 출판사 당 1종으로 연구대상을 설정했다. 연구대상 교과서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자
중학교 음악 ①, ②	1	금성출판사	현경실, 임인경, 최유진, 현경채, 김용희
	2	다락원	조대현, 최은아, 이정대, 여선희, 김영미, 윤아영, 이현정
	3	박영사	주광식, 김영현, 최은아
	4	천재교육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강선영, 문베티, 박은영, 이정은
	5	세광음악출판사	오병태, 오누리, 허화병, 안주연
	6	YBM	박준영, 강만호, 김수철, 윤미영, 임소형, 변은지, 김혜미

교과서		출판사	저자
중학교 음악 ①, ②	7	미래엔	장기범, 박경화, 김주경, 홍중건, 조성기, 송무경, 황지연
	8	아침나라	김광옥, 박정자, 김희경, 박복희, 김주경, 이누리
	9	지학사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박경준, 곽은순, 엄숙용
	10	성안당	정육희, 이정원, 유대안, 임미소, 임새롬
	11	동아	민경훈, 오지향, 정재은, 송주현, 이분희, 양정아, 김선희, 이윤경, 김주현
	12	음악과생활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윤,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
	13	교학사	고영신, 이유정, 이성초, 김효진, 김보라, 최슬기, 길효섭, 이은솔
	14	비상	주대창, 홍미희, 홍진표, 이동희

2) 학교 알리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 11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나뉜다. 각 교육지원청은 다음 <표III-2>와 같이 자치구를 담당한다.

<표III-2> 연구대상 학교 알리미 담당자치구

교육지원청	자치구
서울특별시 동부 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부 교육지원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특별시 남부 교육지원청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북부 교육지원청	노원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중부 교육지원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강동구,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성동구,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성북구, 강북구

다문화 음악 수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국·공립, 사립을 합쳐 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에서 총 389개의 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표III-3>는 각 자치구 별 학교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III-3> 연구대상 학교 알리미 학교 수

자치구	학교 수	자치구	학교 수
강남구	24	서대문구	14
강동구	18	서초구	16
강북구	13	성동구	11
강서구	23	성북구	18
관악구	16	송파구	28
광진구	12	양천구	19
구로구	14	영등포구	11
금천구	9	용산구	9
노원구	26	은평구	18
도봉구	13	종로구	9
동대문구	16	중구	8
동작구	16	중랑구	14
마포구	14		

다문화 음악 교육의 대륙별·국가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악곡의 곡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국가와 대륙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표시한 213개의 학교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 음악 교육에 대한 영역별 비중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107개의 학교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공시 일정이 늦춰진 상태이며, 기존 정시 1차(4월), 정시 2차(5월), 정시 3차(9월) 공시 대국민 서비스는 수시로 학교 알

리미에 공시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학교 알리미에는 공시자료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 수시로 학교 알리미에 대국민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정시 3차(9월) 공시 대국민 서비스는 2학기 자료를 공시하기 때문에 9월에 학교에서 공시 자료를 입력하고 10월 중에 수시로 학교 알리미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연구하기에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어 2019년의 4월과 9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륙별·국가별 분석에서는 213개의 학교, 영역별 비중 분석에서는 107개의 학교에서 제출한 1학기과 2학기 총 2회의 공시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교 알리미 정보공시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및 일정을 정리하면 <표III-4>와 같다.

<표III-4>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연구내용	연구일정
준비	선행연구 문헌 탐색 및 고찰 연구주제 선정	2020.4~2020.5
설계	연구 목적, 대상, 문제 구성 전체적인 일정 및 계획 구상 서론작성	2020.4 ~2020.5
수행	교과서 분석 및 공시정보자료 분류	2020.6 ~ 2020.10
분석	자료 처리 및 분석 연구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2020.6 ~ 2020.10
정리	연구 결과 해석 및 작성	2020.7 ~ 2020.11

3. 연구 도구

1) 교과서의 다문화 영역 요소 준거

합희주의 연구와 같이 교과서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첫째, 대륙 명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둘째, 국가명이 제시되어있거나 셋째, ‘세계’ 혹은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문화적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을 다문화요소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명,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에 나타난 다문화요소 통해 분석하였다.⁴⁷⁾ 주대창의 연구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는 자문화에 속하는 한국 전통음악이 제외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대중음악 또한 지역적 문화권의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현재로선 아직 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역시 분류에서 제외하였다.⁴⁸⁾ <표III-5>는 이에 따른 내용이다.

<표III-5> 연구 도구

다문화 요소제시 방식	대륙 명으로 제시 <그림 III-1>에 해당
	국가 명 제시 <그림 III-2>에 해당
	‘세계’ 혹은 ‘지구촌’ 용어 사용 <그림 III-3>, <그림 III-4>에 해당

47) 합희주(2015). “음악교수법연구 : 초등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단원구성 체계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6(-), p.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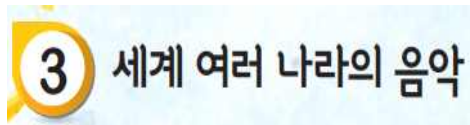
48) 주대창·조효임(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II)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音樂論壇** 18(-), pp. 43-44



<그림 III-1> 대륙명 명시 예 49)



<그림 III-2> 국가명 명시 예 50)



<그림 III-3> 세계 여행 예 51)



<그림 III-4> 지구촌 예 52)

음악 교과서에서 다문화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봄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참고곡과 제재곡을 분석하였다. 제재곡은 악보의 전체적인 것이 모두 제시되었을 경우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개별적인 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악곡의 일부만 수록되었거나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활동 중 다른 나라의 음악이 가진 고유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거나 해당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기와 같은 다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정보 중에 다문화의 요소가 있으면 다문화 음악 영역으로 처리하였다. <그림III-5>, <그림III-6>는 그 예이다.

49)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 ㈜박영사. 64p

50)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강선영, 박은영, 문베티, 이정은(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천재교과서. p.30

51) 박준영, 강만호, 김수철, 윤미영, 임소형, 변은지, 김혜미(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와이비엠. p.70

52) 최은식 위의 책 p.118

1 베트남에 대하여 알아보고 베트남어로 노래 불러 보자.

「사쿠라 사쿠라」에 사용된 음을 알아보고, 중국 민요 「모리화」의 5음 음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림 III-5> 학습 활동 중 다문화요소 예1 53)

<그림 III-6> 학습 활동 중 다문화요소 예2 54)

이러한 분석 기준으로 첫째, 각 교과서의 세계민요 쪽수와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축제, 악기, 문화 등의 다문화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더하여 교과서별 전체 쪽수 대비 다문화 영역의 쪽수로 비교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둘째, 세계민요 악곡의 분포 즉, 나라별 악곡을 대륙별로 각 교과서에서 항목에 따라 어떻게 수록했는지 분류하여 백분율(%)로 표시해 지리에 따른 비중을 제시하였다. 대륙별 분류는 대부분 교과서의 분류와 같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으로 구분하였다. 국가별 분류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보헤미아와 체코는 같이 계수하였고 에스파냐와 스페인 역시 통합하여 계수하였다. 셋째, 다문화음악과 관련하여 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영역 비중을 분석하였다. 음악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표현, 감상, 생활화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한다. 제재곡과 참고곡 모두 다문화 음악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간혹 참고곡과 같은 부분은 특별한 활동 없이 세계민요 소개에 그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계수하였다. <표III-6>를 통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53) 허화병, 오병태, 안주연, 오누리(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50p

54) 현경실, 김용희, 현경제, 임인경, 최유진(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금성출판사. 47p

<표III-6>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핵심개념	활동 예시
표현	음악의 구성	- 노래에 얽힌 전설을 생각하며 2부 합창으로 불러 보자.
	자세와 연주법	- 노랫말에 나타난 나폴리의 경치를 느끼며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불러 보자.
감상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 몽골과 케냐의 음악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장면이나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다양한 연주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생활화	음악과 행사	-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와 이때 사용되는 음악의 특징을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음악과 산업	
	세계 속의 국악	

2) 학교 알리미의 다문화 음악 교육 분석 근거

학교 알리미의 정보공시항목 16가지 중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의 하위 항목으로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교과별(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계획이 있다. 이 중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학교별로 제시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과별(학년별) 교과 지도 운영계획란을 활용하여 음악과의 학습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였다. 공시횟수는 연 2회이며 2회 모두 분석하였다.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근거는 자문화에 속하는 한국 전통음악이 제외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대중음악 또한 지역적 문화권의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현재로서는 아직 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역시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수업의 주제가 ‘세계민요’, ‘지구촌’ 혹은 특정 대륙이나 국가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 및 평가 방법에 “역사,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라고 제시되

거나 관련 단어가 있는 경우, 세계민요를 사용한 경우, 다문화 요소가 제시되어 있거나 다문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다문화 음악교육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산타루치아나 샹젤리제, 오 나의 태양과 같은 악곡은 교과서마다 세계민요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칸초네나 샹송 즉, 서양음악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곡일 경우에는 공시자료에 교과서가 확실하게 제시되어있어 해당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세계민요로 소개되어있을 때만 다문화 음악수업으로 인정하였다. 교과서의 직접적인 제시 대신 교과서의 저자를 표기해놓아 교과서를 유추할 수 있거나, 단원명이 제시되어 있어 단원명으로 교과서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교과서를 찾아 다문화로 분류했을 때만 계수하였다. <표 III-7>, <표 III-8>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표 III-7>은 산타루치아를 이탈리아 민요로 보았기 때문에 다문화 음악 수업에 포함한다.

<표 III-7> 다문화 영역 해당 예시 1

차시 (시기)	수업주제 (단원명)	성취기준	주요업무 계획연계	교수·학습 모형
8 월 3~4주	산타루 치아	이탈리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부분2부 합창을 할 수 있다.		강의, 발표

<표 III-8>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단원명을 통해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III-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2권 34쪽에 산타루치아를 유럽의 이탈리아 민요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음악 수업에 포함한다.

<표 III-8> 다문화 영역 해당 예시 2

주	기간	교과진도 운영계획			기타 안내사항 (지도중점 사항 등)	비고
		내용	시간	누계		
4	03.25 ~ 03.29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 라쿠카라차, 산타루치아, 목동의 노래	1	4	가창활동, 모듬별 발표	
5	04.01 ~ 04.05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 라쿠카라차, 산타루치아, 목동의 노래	1	5	가창활동, 모듬별 발표	수업공개(4/3)

• 유럽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악상 기호에 유의하여 노래할 수 있다.

유럽 민요의 특징

각 나라의 지리와 기후, 언어, 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민요가 많으며, 이러한 민요는 서양 전통 예술 음악 발달에 밑거름이 되었다.

산타 루치아 (Santa Lucia) | 부분 2부 합창!



역사자 미상
이탈리아 민요

<그림 III-7> 미래엔 교과서 산타루치아 55)

성취기준이나 영역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있어도 차시별로 수업을 나눈 것이 아닌 월별로 나누어 제시하여 다문화 음악 수업이 아닌 수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나 활동목표가 불분명하여 어떤 것이 다문화 음악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제외하였다.

<표 III-9>은 7월 한 달의 수업을 제시하였다. 성취기준 [9음01-05]를 통해 표현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성자들의 행진이나 냉면과 같이 다문화악곡을

55) 장기범,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황지연(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 (주) 미래엔. 34쪽

사용하여 국가 및 대륙을 알 수 있지만, 활동목표 및 활동내용에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제시되어 있어 어떤 것이 다문화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하므로 제외한다.

<표III-9> 다문화영역 제외 예시 1

시기(월)	영역	성취기준	학습요소 (지식, 기능, 태도 등)	평가요소	재구성	차시
7월	표현	[9 음 01-05] 바른 자세와 호흡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 장 음 계 (G,F,Bb,D,Eb) - 단 음 계 (e,d,g,b,c)	나물 캐는 처녀성자들의 행진 들장미 냉면	- 손가락 번호를 익혀서 건반에 올려놓고 업, 다운 할 수 있다. - 온음과 반음의 원리와 위치를 이해하며 순서대로 누르고 뿔 수 있다. - 흰 건반과 검은 건반에서의 손가락의 위치와 힘의 작용을 느낄 수 있다.	5

<표 III-10> 역시 표현영역에 해당하는 [9음01-01], [9음01-05] 감상영역에 해당하는 [9음02-03], 생활화영역에 해당하는 [9음03-03]의 성취기준이 나타나 있지만 다문화악곡과 다문화 악곡이 아닌 것이 함께 제시되어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외한다.

<표III-10> 다문화영역 제외 예시 2

시기	시수	영역 또는 단원	교과 성취기준	교과 역량	교수 · 학습 내용 및 학습주제	교수 · 학습 방법	평가 방법 (★는 수행평가 반영)
8월 3주 ~ 9월 2주	5	4. 음악과 문화 공동체	[9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1. '산타루치야' 리듬 익히기 2. 가락 익히고 노래 부르기 3. 유럽의 다른 나라 민요 찾기 4. '진도아리랑'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5. 다른 지역의 아리랑 노래 부르고 비교하기	개별학습, 협동학습	자기-동료평가 관찰평가 프로젝트 활동평가
9월 3주 ~ 10월 1주	5	4. 음악과 문화 공동체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9음03-03]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1.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전통 음악의 맥락적 이해하기 2. 비교하며 음악 감상하기 3. 아리랑 선택 및 역할 나누기 4. 역할 수행하기 5. 발표하고 평가하기	개별학습, 협동학습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 프로젝트 활동평가

각 학교에서 어떤 학기는 위의 기준대로 세밀하게 공시하였지만 어떤 학기는 단원명만 제시한다거나 큰 틀만 제시하여 수업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또한 제외하고, 모든 학기가 위의 기준을 따랐을 경우만 계수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첫째, 음악 수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악곡의 대륙명과 국가명을 분류하여 백분율(%)로 표시해 지리에 따른 비중을 제시하였다. 단, <표III-11>처럼 곡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국가와 대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만 계수하였다. <표III-11>의 하바나길라는 이스라엘 민요로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III-12>의 모리화는 중국민요로 아시아, 잠보는 케냐 민요로 아프리카, 언덕 위의 집은 미국민요로 아메리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 대륙별·국가별 악곡 해당 예시1

주	기 간	주요 행사	내 용	시간/누 계	지도중점 / 비고
38	12.9-13	기말고사 (2학년)	하바나길라	1/31	이스라엘 민요 알기

<표 III-12> 대륙별·국가별 악곡 해당 예시2

주	월	시수		영역 (단 원)	성취기준	교수학습 (학습의 흐름)	평가내용	평가유형
		차 시	누 계					
13	11	1	13	I. 표현 하며 소통 하기	[9음01-01][9음02-03]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 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 나 악기로 연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세계 민요의 특징 o 모리화, 잠보, 언덕 위의 집 	세계 민요의 특징 살려 부르기	개별평가 관찰평가

단, 다음과 같이 간혹 대륙이나 국가명 혹은 세계민요수업인 것만 명시한
곳이 있었으나 이는 제외하였다. <표 III-13>, <표 III-14> 모두 대륙이나 국
가의 명시를 통해 세계민요가 주를 이루는 수업인 것은 알겠으나, 어떤 악곡
을 사용했는지 모를뿐더러 특히 <표 III-15>와 같은 경우는 국가조차 알 수
없어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외한다.

<표 III-13> 대륙별·국가별 악곡 미해당 예시 1

월	요일					단원명	비고
	월	화	수	목	금		
8			14	15	16	독일 음악여행1	14:개학식 15:광복절
	19	20	21	22	23	독일 음악여행2	
	26	27	28	29	30	독일 음악여행3	30:자1,봉3.동3

<표 III-14> 대륙별·국가별 악곡 미해당 예시 2

주 누계	월 일	대단원	소단원	쪽수	진도상황							중요 행사(요일)	
					1	2	3	4	5	6	7		
3 25	8.26~8.30	-	세계 속의 민요“유럽”	44~ 46									28일(수)-영어말하 기대회 30일(금)-동아리(5 ~7교시)
4 26	9.2~9.6	-	세계 속의 민요“아프리카”	47									4일(수)-2차 학교 공개의 날 6일(금)-학생회 리더십캠프 -장애인식개선교육(6-7교시)

<표III-15> 대륙별·국가별 악곡 미해당 예시 3

주 별	월일	학습내용 (소단위)	시 수 / 누 계	학급별 실시 현황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5	6/10-6/14	세계의 민요	1 / 12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영역별 비중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활동 및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내용에 다문화 음악 요소가 명확히 표시되어 영역을 알 수 있는 경우 계수하였다. 영역별 비중을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세부적인 제시 없이 영역만을 제시해 놓은 경우도 포함하였다. 예시를 다음과 같이 <표III-16>, <표III-17>, <표III-18>, <표III-19>로 제시하였다.

<표III-16>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여 원어로 노래하기와 같은 활동은 표현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II-16>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1

주	월	일	단원	교수학습내용	학사일정
16	11	25-29	세계민요여행(모리화, 사쿠라)	중국과 일본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원어로 노래하기	

<표III-17>의 정확한 발음으로 활기차게 노래하기는 표현영역에 해당하고, 제재곡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는 감상영역에 해당한다.

<표III-17>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2

주	날짜	시수	누계	단원명(대단원, 중단원)	소단원(학습주제)	주요 학사일정
7	4. 15 ~ 4. 19	2	12	라 쿠카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발음으로 활기차게 노래하기 제재곡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표III-18>의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축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거나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활동은 생활화영역에 해당한다.

<표III-18>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3

주	날짜	시수	누계	단원명(대단원, 중단원)	소단원(학습주제)	주요 학사일정
20	12. 23 ~ 12. 27	1	34	지구촌 음악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축제를 조사·발표하기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가하기 	새 숲 어울마당(12.24), 성탄절(12.25) 학생회장단선거(12.26), 자율(12.27)

<표III-19>의 경우 악곡 명 외에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표현, 감상이

라는 뚜렷한 영역의 제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계수한다.

<표III-19> 학습영역에 따른 분류 해당 예시 4

주	기간	단 원 명	지도중점 사항 및 안전교육 등	주요 행사
4	09.09-09.13	하바나길라	표현, 감상	12-13일 추석연휴

셋째, 다문화 음악 수업을 할 때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학습과 다문화 음악학습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음악학습은 다문화 악곡을 활용할 때 올바른 표현 방법과 음악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주가 된 목표 및 활동인 경우에 해당하고, 다문화 음악학습은 각 나라가 가진 음악적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민요에 알맞은 표현하기, 원어로 노래 부르기, 민속놀이 하기와 같이 그 나라의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목표 및 학습이 주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명확한 교수학습내용이나 성취기준 혹은 활동 및 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아도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을 나눌 수 있으면 포함했던 것과는 달리, 음악학습과 다문화 음악학습을 나누는 분석에서는 명확한 교수학습내용이나 성취기준 혹은 활동 및 목표가 제시되었을 경우만을 연구하였다. 예시를 <표III-20>으로 나타내었다.

<표III-20> 다문화 음악수업에 제시된 학습 내용 예시

음악학습	사장조 음계 이해하여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을 불러보자.
	악곡에 나타난 2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여 부분2부 합창할 수 있다.
	6/8박자의 리듬을 이해하고 올바른 발성법으로 로렐라이를 부를 수 있다.
다문화 음악학습	언덕위의 집에 얽힌 전설을 이해하며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음악의 리듬을 알아보며 지라니 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에 사용되는 악기를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4. 연구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의 악곡 비중, 나라별·대륙별 비중, 내용 및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영역 비중과 ‘학교 알리미’를 통해 알아본 서울지역 중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별 비중 및 다문화 음악 수업을 소수 들재 자리까지 백분율로 나타내거나 항목을 제시하여 분류를 나눈 연구가 주를 이루므로 엑셀(EXCEL)을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다문화 음악

첫째, 전체 쪽수 대비 다문화영역 쪽수 비율을 확인하였다. 전체 쪽수에서 각 음악 교과서의 표지와 차례, 사진 출처 및 참고문헌, 부록, 용어정리 부분은 제외하였다. 세계민요 제시된 부분과 세계 여러 민족들의 전통 악기, 전통 축제 등으로 다문화 영역과 관련된 요소로 제시된 부분을 모두 다문화 영역으로 계수하였다. 현재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①, ②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합쳐 계수한 백분율 비율은 <표IV-1>과 같다.

<표IV-1> 전체 쪽수 대비 다문화영역 쪽수

출판사	전체 쪽수	다문화영역 쪽수	비율(%)
금성	246	15	6.09
박영사	221	20	9.04
다락원	232	8	3.44
천재	224	13	5.80
세광출판사	220	14	6.36
YBM	234	10	4.27
미래엔	232	7	3.01
아침나라	199	14	7.03
지학사	236	14	5.93
성안당	232	17	7.32
동아	228	10	4.38
음악과생활	238	19	7.98
교학사	241	11	4.56
비상	232	9	3.8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의 전체 쪽수는 3,215쪽이며, 그 중 다문화영역은 181쪽으로 약 5.6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영역의 쪽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박영사이고 전체 쪽수 대비 백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엔 교과서는 3.01%로 가장 낮은 비중이었으며, 다문화 영역 쪽수 또한 7쪽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 즉, 세계민요 악곡을 대륙별·국가별로 분류하여 각 교과서에서 항목에 따라 어떻게 수록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14종 교과서에는 세계 민요가 모두 207번 수록되었다. 박영사, 성안당, 세광출판사, 아침나라, 천재교과서, 다락원, 금성, 음악과생활, YBN, 지학사와 교학사, 동아출판사, 미래엔과 비상 순으로 다수의 악곡을 수록하였다. 세계 민요의 지리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유럽 대륙의 세계민요가 60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아시아가 59번, 아메리카가 41번, 아프리카가 26번, 오세아니아는 21번 순으로 오세아니아가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IV-2>로 나타내었다.

<표IV-2> 세계민요 악곡 대륙별·국가별 분류

출판사 \ 대륙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합계
금성	4	2	4	3	2	15
박영사	5	5	13	2	3	28
다락원	4	3	3	2	4	16
천재	4	3	7	2	1	17
세광출판사	6	4	6	2	2	20
YBM	6	2	3	-	1	12
미래엔	1	2	2	1	1	7
아침나라	5	4	6	1	2	18
지학사	5	1	3	1	1	11
성안당	6	6	5	2	3	22
동아	3	4	-	2	1	10
음악과생활	3	3	3	2	2	13
교학사	6	1	2	-	2	11
비상	1	1	3	1	1	7
합계(회)	59	41	60	21	26	207
비율(%)	28.50	19.81	28.99	10.14	12.56	100

다음은 교과서에 수록된 세계민요의 국가별 비중을 계수하여 횡수로 나타내었다. 아시아 대륙의 세계민요는 총 13개의 국가에서 19곡으로 총 59번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중국의 민요가 비상교과서 한곳만을 제외하고 13 교과서 모두 제시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민요 모리화는 총 13번이 수록되었으며 다문화 곡을 통틀어 가장 많이 수록된 곡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세계민요는 총 8개의 국가에서 17곡으로 총 41번 제시되었다. 유럽 대륙의 세계민요는 총 13개의 국가에서 27곡으로 총 60번 제시되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세계민요는 총 3개의 국가에서 6곡으로 총 21번 제시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세계민요는 총 8개의 국가에서 7곡으로 총 26번 제시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3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18회, 유럽에

서는 이탈리아가 10회,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가 12회,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12회로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IV-3>로 나타내었다.

<표IV-3> 대륙 및 나라별 제시 횟수

대륙명	나라명	교과서													총합(회)
		금성	박영사	다락원	천재	세광	YBM	미래엔	아침나라	지학사	성안당	동아	음악과생활	교학사	
아시아	중국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필리핀	1	1			1	1		1			1			6
	일본	1		1	1	1	1		1	1	1	1		1	10
	러시아	1	1	1	1	1	1			1	1			1	9
	이스라엘		1	1							1		1		4
	인도네시아		1						1		1			1	4
	인도													1	1
	터키				1						1				2
	몽골					1	1								2
	베트남					1	1		1	1			1	1	6
	네팔									1					1
말레이시아													1	1	
아메리카	미국	1	2	2	1	1	1	1	3		2	2	1	1	18
	멕시코	1	1	1	1	1	1	1		1	1	1		1	11
	브라질					1						1	1		3
	아르헨티나					1									1
	쿠바		1		1				1		1				4
	캐나다		1								1				2
	푸에르토리크										1				1
	바하마											1			1
유럽	영국		1	1	1	1			1	1	1				7
	체코(=보헤미아)	1	2	1	2	1			1						8
	이탈리아	1	1	1	1	1	1	1				1	1	1	10
	독일	1	2		2								1	1	7
	스코틀랜드		1				1								2
	프랑스		1			1				1		1			4
	에스파냐		2			1			1		1	1		1	7
	스위스		1		1	1		1	1	1					6

대 륙 명	나라명	교과서												총 합 (회)		
		금성	박영사	다락원	천재	세광	YBM	미래엔	아침나라	지학사	성안당	동아	음악과생활		교학사	비상
	노르웨이1		1								1				2	
	핀란드		1												1	
	아일랜드	1						1		1					3	
	오스트리아						1				1				2	
	폴란드								1						1	
오 세 아 니 아	오스트레일리아	1	1	1	1	1					1	1	1		8	
	뉴질랜드	1	1	1	1	1		1	1	1	1	1		1	12	
	사모아	1													1	
아 프 리 카	가나	1	1								1		1	1	5	
	케냐	1	1	1	1		1	1	1	1	1		1	1	12	
	탄자니아		1	1		1									3	
	나이지리아					1									1	
	자메이카			1											1	
	아프리카			1									1		2	
	우간다							1						1		
	남아공									1				1		
계 (회)		15	28	16	17	20	12	7	18	11	22	10	13	11	7	207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악곡인 ‘모리화’를 교과서마다 목표 및 활동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원어로 노래 부르기가 6번, 5음 음계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이 3번, 모리화를 통해 아시아 민요의 특징을 알아보기가 4번,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등장하는 모리화 감상하기가 3번 제시되었으며 그 외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악기를 비교하여 조사해보는 활동이 있었다. <표IV-4>는 목표 및 활동에 따라 각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세히 나타내었다.

<표IV-4> 모리화 목표 및 활동

목표 및 활동	교과서	세부내용
원어로 부르기	와이비엠편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노래를 우리말과 원어로 불러보자
	지학사	아시아 민요를 원어 가사로 불러 보자
	동아	중국민요의 특징을 살려 원어로 노래 불러보자
	성안당	중국인이 부르는 원곡을 감상한 후 중국 고유의 멋을 느끼며 원어로 불러보자
	음악과생활	노랫말의 뜻을 생각하며 중국어로 노래 불러보자
	금성	모리화를 원어로 노래해 보고, 제재곡에 사용된 음을 알아보자
5음음계 이해하기	음악과생활	제재곡에 사용된 음을 오선보에 그려 보자
	금성	모리화를 원어로 노래해 보고, 제재곡에 사용된 음을 알아보자
	다락원	5음음계 소개 (별다른활동은없음)
아시아 민요 특징 알기	미래엔	아시아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할 수 있다.
	지학사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자
	교학사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살려 민요를 부를 수 있다
	박영사	아시아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여러 지역의 아시아 민요를 불러 보자.
오페라 감상하기	음악과생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사용된 제재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적어보자.
	금성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THE mountains of the east와 모리화를 비교하여 감상해보고 그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천재	오페라 속 민요를 듣고 노래부를 수 있다.
그 외	성안당	연주형태가 비슷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악기를 비교하여 조사해보자

다음은 대륙 및 나라별 악곡은 어떤 것이 실려있는지 <표IV-5>로 정리하였다.

<표IV-5> 대륙 및 나라별 악곡

대륙명	나라명	악곡명
아시아	중국	모리화
	필리핀	꽃은 지고, 레론 레론 산타, 에 뽀이 타이파이
	일본	소란부시, 사쿠라, 반딧불이 오나라
	러시아	칼린카, 불가 강의 뱃노래, 카추샤, 트로이카
	이스라엘	안녕, 하바나길라
	인도네시아	침밀밀, 내 어머니
	인도	달아달아
	터키	위스퀴다르
	몽골	몽골의 밤의 노래, 호두
	베트남	리 디아 빠임 보, 베오 닷 메이 초이, 어린이들의 축제
	말레이시아	맛있는 음식들
	네팔	레썸 빠리리
아메리카	미국	언덕 위의 집, 알로하 오에, 타이디오, 즐거운 나의 집, 오 수재너, 비 브라 콤파니, 나는 철도를 놓았네, 성자들의 행진
	멕시코	라 쿠카라차, 얼룩 새, 라 밤바
	브라질	춤추자 삼바, 발라이오
	아르헨티나	노래해요 멋진 가수여러분
	쿠바	관타나메라
캐나다	로키의 밤	
유럽	영국	푸른 옷소매, 스카보로 장터, 옛 농장, 피크닉의 노래
	체코(=보헤미아)	푸른 목장, 산들바람, 목장길 따라
	이탈리아	산타루치아, 루치오의 자동차, 푸니쿨리 푸니쿨라
	독일	노래는 즐겁다, 어여쁘장미, 즐겁게 노래하자, 이몸이새라면, 봄바람, 로렐라이
	스코틀랜드	아름다운 나의 벗, 로몬드 호수
	프랑스	아비뇽 다리 위에서
	에스파냐	고향 생각, 고별의 노래
	스위스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목동의 노래
	노르웨이	고향
	핀란드	들어봐 종이 울려
	아일랜드	아!목동아
	폴란드	아가씨들아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쿠카부라, 월칭마틸다
	뉴질랜드	연가, 마오리 숫자 놀이의 노래, 포 카레카레 아나
	사모아	코코넛껍데기
아프리카	가나	체체쿨레
	케냐	잠보, 말라이카
	탄자니아	시마마카
	나이지리아	뱃노래
	자메이카	망고워크
	아프리카	틀라바바
우간다	틀라 틀라 와가티	

다음은 학습영역 비중을 나타낸 표이다. 표현영역이 111개를 차지하며 60.66%로 눈에 띄게 가장 많았으며 감상 영역은 66개로 36.07%, 생활화 영역은 6개로 3.28%로 표현영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의 결과를 보였다. 표현영역은 21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모든 출판사가 표현영역을 다루었지만, 생활화 영역은 2회로 그쳤으며, 금성, 천재, 미래엔을 제외한 나머지 11종에서 생활화 영역을 다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표IV-6>로 정리하였다.

<표IV-6> 교과서 별 학습영역 비중

	표현	감상	생활화
금성	3	6	2
박영사	11	10	0
다락원	4	4	0
천재	16	7	2
세광출판사	21	12	0
YBM	7	8	0
미래엔	6	4	2
아침나라	3	2	0
지학사	6	2	0
성안당	6	2	0
동아	5	4	0
음악과생활	14	4	0
교학사	2	0	0
비상	7	1	0
합	111	66	6
비율(%)	60.66	36.07	3.28

2. 학교 알리미 공시정보의 다문화 수업 실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다문화 음악 수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가. 다문화 음악 교육의 대륙별·국가별 분석 결과

서울 소재 중학교 음악 수업의 현장에서 다문화 음악 수업 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라별 악곡을 대륙별로 분류하였다.

유럽이 365회로 40.69%를 보이며 5대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아메리카가 285회로 31.77%, 아시아가 102회로 11.37%, 오세아니아가 100회로 11.15%, 아프리카가 45회로 5.02%의 순으로 점점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대륙의 나라별 최다 수업 횟수는 아시아의 중국이 43회이며 아시아 대륙대비 42.16%, 아메리카의 미국이 199회로 대륙대비 69.82%, 유럽의 이탈리아가 91회로 24.93%.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가 92회로 92.00% 아프리카의 케냐가 37회로 대륙별 대비 82.22%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오세아니아 대륙의 다문화 악곡은 뉴질랜드의 악곡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다문화 악곡은 케냐 악곡으로 거의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다문화 악곡 대비 많이 다루어지는 순서는 미국 199회 뉴질랜드 92회 이탈리아 91회 보헤미아 83회 멕시코 76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IV-7>은 이를 정리한 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4종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여러 나라의 다문화 악곡 중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아시아의 터키와 네팔,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그리고 유럽의 노르웨이와 핀란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우간다, 남아공의 악곡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표IV-7> 다문화 음악 교육의 악곡 대륙·국가별 분류

대륙명	나라명	지도교육청											총합(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국가별	대륙별	
														횟수(회)	비율(%)
아시아	중국	2	4	6	4	2	5	3	4	6	4	3	43	102	11.37
	필리핀				1		3			1			5		
	일본			2	1		3			1			7		
	러시아	3		2					2	1		2	10		
	이스라엘	5		2		2	2	1		1		1	14		
	인도네시아	1		3	1			2	1	3	1	2	14		
	인도												1		
	몽골						1						1		
	베트남						2						2		
말레이시아			2		1		1	1				5	285	31.77	
아메리카	미국	10	39	13	14	15	20	22	11	28	17	10			199
	멕시코	6	6	9	3	4	7	8	6	13	10	4			76
	브라질	1		1			1								3
	쿠바		1			1			1			1			4
	캐나다		1			1						1	3		
유럽	영국	2	4	3	1	2	3	2	2	2	2	3	26	365	40.69
	체코(=보헤미아)	12	10	8	8	5	8	9	7	2	9	5	83		
	이탈리아	5	10	10	2	4	12	8	9	15	11	5	91		
	독일	3	5	9	6	4	7		7	4	6	3	54		
	스코틀랜드		2	2				1		1	1	1	8		
	프랑스			2			2		1			1	6		
	에스파냐		1	4		1			4	2	1	1	14		
	스위스	11	7	9	4	2	7	5	4	6	6	3	64		
	아일랜드		3		1	1	2				1		11		
	오스트리아			1	1	1					2	1	6		
폴란드				1		1						2	100	11.15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		2				1			1				5
	뉴질랜드	9	8	17	6	3	15	2	9	4	12	7			92
	사모아			1			1			1			3		
아프리카	가나					1							1	45	5.02
	케냐	4	3	5	1	2	3	3	3	7	5	1	37		
	탄자니아			1		1						1	3		
	아프리카			1			3						4		
총합													890		

다음은 악곡 별 제시된 횟수를 알아보았다. 모리화가 43회, 라쿠카라차가 76회, 산타루치아가 85회, 연가가 91회 잠보가 35회로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특히 멕시코 악곡을 다룰 때 라쿠카라차 단 한 곡으로만 모든 수업이 계획되었다. 뉴질랜드의 연가와 케냐의 잠보 같은 경우에는 대륙별 악곡 전체 제시 횟수 대비 96.80%, 77.78%로 쉽게 말해 오세아니아 대륙을 다룰 때는 96.80%로 연가를 제재곡으로 활용하며, 아프리카 대륙을 다룰 때는 77.78%로 잠보를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음악 수업 시 매우 편중되어 곡을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는 아시아와 관련하여 총 24곡이 수록되었지만 서울 지역의 학교에서는 아시아 관련 16곡을 다루었다. 아메리카 역시 교과서에 16곡이 수록되었으나 15곡을 다루었으며, 마찬가지로 유럽 또한 교과서에는 27곡이 수록된 것에 비해 26곡을 다루었다. 오세아니아는 역시 교과서에 6곡이 수록되었으나 수업에서는 5곡만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프리카 또한 교과서에 8곡이 수록되었지만 수업에서는 5곡을 다루었다. 전체 음악 교과서에서 81곡이 다루어진 것에 비해 서울 지역의 음악 수업 시에 67곡이 사용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악곡보다 실제로 수업에 사용하는 곡은 대륙별로 모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곡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8>를 통해 더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표IV-8> 악곡 별 제시 횟수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악곡명	횟수	악곡명	횟수	악곡명	횟수	악곡명	횟수	악곡명	횟수
모리화	43	라쿠카라차	76	산타루치아	85	연가	91	잠보	35
침밀밀	14	즐거운나의집	59	푸른 목장	69	월칭마틸다	4	누구나 토요일 밤을 좋아해	4
하바나길라	12	언덕위의집	53	아름다운 베르 네산골	48	코코넛껍데기	3	시마마카	3
사쿠라	7	오수채너	35	로렐라이	21	마오리의숫자 노래	1	말라이카	2
갈린카	6	비브라콤포니	25	푸른 옷소매	19	쿠카부라	1	체체쿨레	1
맛있는 음식들	4	성자들의행진	12	여행자	15				
꽃은지고	3	즐거운여행자	8	노래는 즐겁다	15				
리디아빠임보	2	관타나메라	4	목장길따라	14				
예쁜이따이따이	2	로키의봄	3	고향생각	12				
불가강의벳노래	1	나는철도를놓 았네	3	목동의 노래	12				
툼발랄라이카	1	메기의추억	2	아 목동아	11				
몽골의밤의노래	1	발라이오	2	숲의요들	6				
달아달아	1	알로하오에	1	애니로리	5				
트로이카	1	흔들리는마차 는	1	푸니쿨리 푸니 쿨라	4				
춤갈리갈리 벳노래	2 1	춤추자심바	1	옛농장	4				
				피크닉의 노래	4				
				아름다운 나의 벗	3				
				오나의태양	2				
				아름다운 엠멘 탈	2				
				즐겁게 노래하 자	2				
				아가씨들아	2				
				동네한바퀴	2				
				어여쁜장미	1				
				로망스	1				
				고별의노래	1				
				상젤리제	1				

나. 다문화 음악 교육에 대한 영역별 비중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영역별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서울 소재 389개의 학교의 학교 알리미 공시항목인 교육 정보 중 2019년 1학기와 2학기의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참고하였다.

이처럼 서울 지역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영역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389개의 학교 중 107개의 학교에서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511개의 다문화 음악 수업 계획을 공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영역별 비중은 표현이 63.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감상 영역으로 30.53%이며 생활화 영역이 6.2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IV-9>는 영역별로 나타낸 표이다.

<표IV-9> 다문화 음악 수업 학습영역 비중

교육지원청	학교 수	표현	감상	생활화
동부	8	22	13	2
서부	14	40	6	10
남부	12	50	19	2
북부	12	27	12	3
중부	5	16	10	0
강동송파	14	41	29	2
강서양천	8	18	3	0
강남서초	13	37	16	6
동작관악	7	46	22	3
성동광진	7	19	19	0
성북강북	7	6	5	4
합계(회)	107	322	154	32
비율(%)	-	63.21	30.53	6.26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음악 수업에서 다문화 악곡을 다루며 음악

학습을 하는 경우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학습하는 경우로 나눈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107개의 학교에서 26개의 학교가 제외되어 81개 학교의 교과별(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계획만을 참고할 수 있었다. 81개 학교에서 제출한 공시자료 중 362회의 수업을 추린 후 분석한 결과 음악학습 53.27%, 다문화 음악학습은 46.04%로 나타났다. 다문화 악곡을 다루며 음악학습을 목표 및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7.94% 더 많았으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0>과 같다.

<표IV-10> 다문화 음악수업에 제시된 학습내용 분류

교육지원청	음악학습(회)	다문화음악학습(회)
동부	2	3
	1	13
서부	10	6
	2	16
	3	0
남부	14	8
	12	16
	1	1
북부	17	11
	2	5
중부	5	0
	9	6
	1	0
강동송파	18	6
	6	11
강서양천	4	2
	4	1
강남서초	21	13
	3	9
동작관악	10	10
	14	13
성동광진	22	2
	10	7
성북강북	4	7
	1	0
합계(회)	196	166
비중(%)	53.97	46.03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 14종과 학교 알리미의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다문화 음악 수업의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음악 교과에서의 다문화 음악 수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의 악곡 비중을 교과서별로 쪽수로 계수하여 분석한 결과 박영사 교과서가 28곡 수록되어 9.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미래엔과 비상 교과서가 7곡으로 3.01%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 악곡은 교과서 전체에 총 207곡이 수록되었고 14종 전체 교과서의 쪽수 대비 다문화 요소가 있는 쪽수의 비율은 5.63%였다. 음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악 영역의 비중을 좀 더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대륙별 악곡 분포는 유럽이 41회로 28.99%의 비중을 나타내며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아시아가 59회로 28.5%, 아메리카가 41회로 19.81%, 아프리카가 26회로 12.56%, 오세아니아가 21회로 10.14%를 보이며 오세아니아가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 국가별 악곡 제시 비중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3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18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10회,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가 12회,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12회로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국가였다.

셋째, 교과서의 다문화 음악영역의 학습영역 비중을 나타낸 분석에서는 표현영역이 111개, 감상영역이 66, 생활화 영역이 6개로 나타났다. 표현영역에 편중되어 생활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학습영역의 균형적인 비중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보완하여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학교 알리미를 통해 알아본 서울 소재 중학교의 다문화 음악 수업 시 다루는 대륙별·국가별 분석 결과는 유럽이 365회로 40.96%를 보이며 5대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아메리카가 285회로 31.99%, 아시아가 102회로 11.45%, 오세아니아가 94회로 10.55%, 아프리카가 45회로 5.05%의 순으로 점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다루는 악곡을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중국이 16회, 미국이 104회, 이탈리아 37회, 뉴질랜드 41회, 케냐 12회로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국가였다. 이는 교과서와 똑같은 결과였다.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나라의 다문화 악곡 중 서울 전 지역에서 아시아의 터키와 네팔,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그리고 유럽의 노르웨이와 핀란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우간다, 남아공의 악곡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악곡 별 제시된 횟수를 알아본 결과 아시아 대륙인 중국의 모리화가 43회, 아메리카 대륙인 멕시코의 라쿠카라차가 76회, 유럽 대륙인 산타루치아가 85회, 오세아니아 대륙의 뉴질랜드의 연가가 91회, 아프리카 대륙의 잠보가 35회로 대륙별로 최다 제시되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라쿠카라차 한 곡으로 수업이 전부 계획되었으며 오세아니아의 연가와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는 대륙별 악곡 전체 제시 횟수 대비 96.80%, 77.78%로 매우 편중되어 곡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대륙별 악곡 개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음악 교과서에서 81곡이 다루어진 것에 비해 서울지역의 음악 수업 시에 67곡이 사용된 것을 보아,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곡을 실제로 수업에 다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제 수업에서 악곡의 다양성을 고려할 계획이 요구된다.

여섯째, 서울지역의 다문화 음악 수업의 영역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이 63.21%로 가장 높았고 감상영역이 30.53%, 생활화 영역이 6.2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영역의 균형적인 비중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학교 음악 수업에서 다문화 음악 수업을 통한 학습의 목표 및 내용을 음악학습과 다문화 음악학습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 음악 수업에서 다문화 악곡을 다루며 음악학습을 하는 경우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경우보다 7.94% 더 많았다. 음악 수업 시에 다문화 악곡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조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악곡을 적극 더 활용하는 다문화 음악 수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다문화 음악 분석과 서울지역 중학교 다문화 음악교육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악곡 중 서울 전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는 악곡이 있다는 점과 연가나 잠보 혹은 모리화와 같이 다루는 악곡이 매우 집중된 형태로 수업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악곡을 다룰 필요가 있다. 학습영역 또한 교과서와 실제 수업에서 표현영역에 치중된 것과 생활화 영역이 눈에 띄게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학습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알린다.

참 고 문 헌

- 고영신, 이유정, 이성초, 김호진, 김보라, 최슬기, 길효섭, 이은솔(2018). 「**중학교 음악1**」. 서울: 교학사.
- 고영신, 이유정, 이성초, 김호진, 김보라, 최슬기, 길효섭, 이은솔(2018). 「**중학교 음악2**」. 서울: 교학사.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839호].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5-14호**.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20).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서울: 교육부.
-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음악과 문화**. 2(-), 49-76.
- 김경식·권민석·김병규·박명희·박형진·서봉언·윤주국·이현철·최성보(2017).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제2판
- 김광옥, 박정자, 김희경, 박복희, 김주경, 이누리(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아침나라.
- 김광옥, 박정자, 김희경, 박복희, 김주경, 이누리(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아침나라.
- 김영원(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악곡 분석 연구: 문화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영(2012). **다문화 콘텐츠 기획-다문화시대를 여는 미래전략**.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태희(2016). “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8(-), 2-27.
-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한국예술교육**

- 학회. 7(1), 93-111.
- 민경훈, 오지향, 정재은, 송주현, 이분희, 양정아, 김선희, 이윤경, 김주현(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동아출판(주).
- 민경훈, 오지향, 정재은, 송주현, 이분희, 양정아, 김선희, 이윤경, 김주현(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동아출판(주).
- 박가현(2020). ‘학교 알리미’를 통한 서양 음악사 지도의 실태분석 : 충북지역 중학교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승우(2019). **다문화 교육과 정책의 이해**.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박준영, 강만호, 김수철, 윤미영, 임소형, 변은지, 김혜미(2017).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와이비엠.
- 박준영, 강만호, 김수철, 윤미영, 임소형, 변은지, 김혜미(2017).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와이비엠.
- 박지현(2019). “2015 개정 음악과 역량의 의미와 요소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6), 83-91.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서혁 (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1-24.
- 성상환(2010). “미국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상담전략” **다문화교육연구와 실천**, 2(-), 1-17.
- 성유경(2019).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등 음악 교과서 비교 분석 : 세계의 민요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성주원(2012).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 : 경상

- 남도 지역 중학교 음악교사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상록(2008). “다문화사회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사회통합 모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8(6), 29-37.
-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운,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음악과생활.
-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운,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음악과생활.
- 여성가족부(2019). **제3차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서울: 여성가족부
- 오지향·조혜윤(2019).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학습 내용 분석”. **미래음악교육연구** 4(2) 23-46.
- 원진숙·김정원·이인재·남호엽·박상철·김광수·류재만·장은영(2018) “**학교 다문화교육론**”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유재덕(2015). “기독교 통일 교육의 새로운 모색 :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2(-), 241-270.
- 이승연(2011).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중등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재(2012). “다문화사회 개념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 인간**, 1(1), 35-61.
- 이지원(2019).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인천지역 중학생의 인식 및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적자원정책국(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서울: 교육부.
- 장기범,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황지연(2017).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미래엔.
- 장기범,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황지연(2017).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미래엔.
- 전경옥(2010). “다문화사회의 학교 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OUGHTOPIA, 25(2), 41-76.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박경준, 곽은순, 엄숙용(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지학사.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박경준, 곽은순, 엄숙용(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지학사.

정석원·정진철(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정옥희, 이정원, 유대안, 임미소, 임새롬(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성안당.

정옥희, 이정원, 유대안, 임미소, 임새롬(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성안당.

조대현, 김영미, 윤아영, 최은아, 이정대, 이현정, 여선희(2017).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다락원.

조대현, 김영미, 윤아영, 최은아, 이정대, 이현정, 여선희(2017).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다락원.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박영사.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박영사.

주대창, 홍미희, 홍진표, 이동희(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비상교육.

주대창, 홍미희, 홍진표, 이동희(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비상교육.

주대창·조효임(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音樂論壇** 18(-), 43-72.

진시원(2018).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검토“, **다문화사회연구**, 11(1), 161-201.

장근주·이영미(2017).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탐색”. **음악교육공학** -(32), 233-255.

- 최성환(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 287-310.
- 최승은·박봉수(2013).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29 2(1), 87-105.
-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강선영, 박은영, 문베티, 이정은(2017).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천재교과서.
-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강선영, 박은영, 문베티, 이정은(2017).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천재교과서.
- 통계청(2019). **2019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서울: 통계청 p.1
- 학교 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si/po/pnsipo_a01_s0.do 2020.06
- 학교 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si/pi/pnsipi_a01_11.do?SEARCHYEAR=2020 2020.06
- 허화병, 오병태, 안주연, 오누리(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허화병, 오병태, 안주연, 오누리(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현경실, 김용희,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2017). 「**중학교 음악1**」. 서울: (주)금성출판사.
- 현경실, 김용희,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2017). 「**중학교 음악2**」. 서울: (주)금성출판사.
- 함희주(2015). “음악교수법연구 : 초등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단원구성 체계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6(-), 255-276.
- 함희주·최은식·석문주·권덕원(2017). **음악교육의 기초(제4판)**. 파주: 교육과학사.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9%EA%B5%90+%EA%B3%B5%EC%8B%9C%EC%A0%95%EB%B3%B4#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6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Music Classes According to 2015 Revised Curriculum

Song, Hye - yeon
Department of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music classes at middle schools in Seoul using 14 types of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s and public information from school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ercentage of music of multicultural music textbooks was calculated by the number of pages per the textbooks, among 14 textbooks, parkyoungsa textbook had the highest proportion, while Miraen had the lowest proportion.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ges with multicultural elements to the number of pages in all 14 textbooks was 5.63%.

Second, as the results of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multicultural

music contained each textbook by the number of music, continents and countries, parkyoungsa textbook contains the most with 28 music, while MiraeN and visang textbooks had the least with 7 music. Music distribution by continents, the highest one was Europe in 41 times, followed by Asia, America, Africa, and the lowest one was Oceania at 21 times. Countries that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national music on each continent, China was 13 times in Asia, the United States was 18 times in America, Italy was 10 times in Europe, New Zealand was 12 times in Oceania, and Kenya was 12 times in Africa.

Third, the analysis that shows the proportion of learning areas according to the content system of multicultural music in textbook, the expression area was the highest with 111, followed by the appreciation area with 55, and the habituation area with 6.

Fourth, as the results of music analysis by continents, which covers multicultural music classes at middle schools in Seoul by school notification, Europe was the most presented with 365 times among 5 continents. By country, the U.S was the highest one with 199 times.

Fifth, based on the number of music presented the most by each continent, Jasmin (Morihwa) with 43 times in Asia, Lakukaracha with 76 times in America, Santa Lucia with 85 times in Europe, Love song with 91 times in Oceania, and Jambo with 35 times in Africa.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number of music by continent, 67 songs were used in multicultural music classes in Seoul, compared to all 81 multicultural music textbooks, so it could indicate that not all songs in the textbooks are covered in the classes.

Sixth,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music classes in Seoul, like textbooks, the expression area was the highest, followed by appreciation and habituation, and the case of learning music while covering the multicultural music in music class was 7.94% more than the case of learning related to various cultures of different countries.